

하이퍼 리얼리즘 예술과 패션에 나타난 일상성의 표현 특성

- Duane Hanson과 Vetements을 중심으로 -

조 한 아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 조각가 듀안 헨슨의 작품에 나타나는 일상성 표현 양상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베트멍 작품에 나타난 일상성의 표현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성은 기존의 패션디자인에서 추구하는 표현과 상반된 특성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가 듀안 헨슨의 이력과 작품 세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평범한 일상을 본격적으로 작품의 주제로 표현하기 시작한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작품으로 제한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듀안 헨슨은 전형적인 인물 표현, 일상 공간으로의 편입, 일상적 시간 표현, 만들어진 오브제의 사용을 통해 인체에 일상성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컬렉션 분석은 베트멍이 파리 패션 컬렉션에 참가하기 시작한 2015 S/S부터 2019 F/W 시즌까지로 제한하였으며, 컬렉션 사진 이미지 총 463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베트멍에 나타나는 일상성 표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현실성 표현이다. 다양한 사회적 삶의 고정적 관념들을 찾아내 현실 속 실제 하는 인물처럼 재현하여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인간상을 표현하였다. 둘째는 실재성 표현이다. 도시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공간을 런웨이를 편입하여 일상적인 상황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해 ‘옷이란 실재적으로 그들이 입는 것이다’라는 옷에 대한 본질을 표현하였다. 세 번째는 일시성 표현이다. 빈티지 소재나 의복을 재사용하거나 해체한 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경험되어진 것에 대한 기억의 순간을 반복하였다. 매일의 일상에서 사진을 찍듯 일시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그 일시적 장면들의 반복을 통해 일상의 지속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보편성의 표현이다. 생활 주변의 오브제들을 있는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보편적 일상성을 상징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베트멍은 인물의 전형화를 통한 현실성, 일상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 실재성과 일시성을 표현하고 일상의 오브제 사용으로 보편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 도시의 일상 이미지를 패션에 반영하여 일상성을 표현하였다.

주제어 : 일상성, 하이퍼 리얼리즘, 듀안 헨슨, 패션, 베트멍

*교신저자: 김영인, youngin@yonsei.ac.kr

접수일: 2019년 7월 2일, 수정논문접수일: 2019년 8월 7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3일

I. 서론

최근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면 패션 유행 경향의 범주 밖으로 여겨지던 일상복과 아웃도어 의상이 런웨이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 대중이 도달하기 어려운 패션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접할 수 있는 아이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일상을 재발견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일상의 이미지나 모습이 하나의 소재에서 벗어나 ‘일상’ 그 자체가 예술로 승화되었던 팝아트(Pop art)와 하이퍼 리얼리즘(Hyper realism) 예술처럼 패션에도 매일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의식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상에서 영감을 얻어 대중의 취향과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대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베트멍(Vetements)은 현대패션의 일상을 향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브랜드 명인 베트멍은 프랑스어로 ‘옷’이라는 뜻으로 옷 그 자체의 가장 순수한 본질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브랜드 정체성을 대변한다. 베트멍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복식의 미적 특징 중 유희성이 이전 시대와는 다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말의 해체주의 패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해체주의만이 내포한 미적 가치를 연구하고 재미와 유희를 추구하는 특성을 밝혀냈다(Kim & Ha, 2016). 재미와 유희성을 추구하여 2014년 이후 등장한 해체주의를 긍정적 해체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Kim & Kim, 2017) 베트멍의 디자이너 데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의 작품에 나타나는 포스트 소비에트의 영향을 논의하면서 유희성을 도출하였다(Jo & Park, 2017). 위 선행 연구는 베트멍 디자인을 신-해체주의 경향의 아방가르드(Avant-garde)로 정의하고 있다. 공통으로 도출된 디자인 특성은 유희성으로, 이것은 일상을 통한 대중의 수용으로 나타났으며 20세기 말 해체주의 경향 디자이너들의 표현 특성과 가장 큰 차이점이

라고 규명하였다.

1990년대 대표적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의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베트멍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마르지엘라는 옷이라는 물리성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해체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였다. 반면 베트멍은 해체라는 말을 “외부적인 면에 문자 그대로 적용된 경우로 기존의 옷의 구조적 형태, 구성방식과 같은 물리적 대상이나 격식을 해체한다는 의미”(Choi, 2013, p. 66)에서 사용하고 있다. 해체주의에 기반을 둔 아방가르드 디자인은 조형적 특성으로 마르지엘라와 그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내용적인 특성에서 “나는 개념적인 패션이 아닌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제품디자이너에 가깝다”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베트멍은 옷 본래의 기능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베트멍은 패션을 통해 이상화된 미와 환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존 패션 질서에 반하는 일상과 밀접한 연관성 아래 실재적인 의미의 옷 그 자체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멍을 정의하는데 빠질 수 없는 특성인 일상성은 패션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개념이 된다. 베트멍은 본격적으로 현대패션에 일상이라는 주제를 반영하여 패션 트렌드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상의 이미지는 일찍이 예술에서는 팝아트에서 시도되었고 그 영향으로 1960년대 말 하이퍼 리얼리즘에서 본격적으로 일상 그 자체가 주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추상 미술에서 재현 미술로 회귀하면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동시대의 평범한 삶과 행동 양식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개념적인 사고보다는 일상적 현실을 극한의 시각적 표현으로 보여주려는 하이퍼 리얼리즘의 특성과 개념적 패션보다는 실재적 패션을 추구하며 디자인에 일상의 반영을 시도하는 베트멍의 미학적 특성은 상당 부분 닮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하이퍼

리얼리즘의 대표 조각가 듀안 헨슨(Duane Hanson)의 작품에 나타나는 일상성 표현 양상을 고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명 작품의 일상성 표현 특성을 규명하였다. 2014년 리얼리티 관점의 미학을 제시한 베트명을 기점으로 일상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패션디자인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일상성의 표현은 이전 패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에서 현대 도시의 일상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워 구체적으로 일상을 서술한 하이퍼리얼리즘 조각가 듀안 헨슨의 작품을 활용 사례로 선정하였다. 후기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일상성 혹은 일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매체의 차용과 혼성 모방을 사용하는 전반적인 경향 속에서 듀안 헨슨의 인체 형상은 그 자체가 일상성을 띤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토대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듀안 헨슨의 작품과 베트명의 컬렉션을 토대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하이퍼 리얼리즘의 개념과 듀안 헨슨의 이력과 작품 세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도시의 일상을 작품의 주제로 표현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으로 제한하였다. 인체에 반영되는 일상의 표현 형태와 일상 이미지가 현대 인체 조각에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듀안 헨슨은 전형적인 인물 표현, 일상 공간으로의 편입, 일상적 시간 표현, 만들어진 오브제의 사용을 통해 인체에 일상성을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듀안 헨슨 작품을 통해 분석한 4가지의 일상성 표현을 토대로 베트명의 작품에 표현되는 일상성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컬렉션 분석은 베트명이 파리 패션 컬렉션에 참가하기 시작한 2015 S/S부터 2019 F/W 시즌까지로 한정하였으며, 패션 컬렉션 전문 사이트 보그닷컴(www.vogue.com)을 활용하여 컬렉션 사진 이미지 총 463점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일상성의 개념

1960년대 거대 담론이 무너진 자리를 채우는 것은 미학화된 일상이다. 이전까지 일상은 그 진부함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넘어서야만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현대인들은 거대한 사건이나 역사보다는 다양한 일상의 느낌이나 개인의 기억과 경험 같은 일상의 사소한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직접적인 문제들이 현대의 화두가 되었다. 일상성의 이론가이자 철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일상은 재화의 생산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과 인간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구체적인 삶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 산업자본주의의 사회적 현상으로 야기된 일상성의 변화 가운데 도시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일상이란 일상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성으로 매일의 일상 축적을 통해 드러나는 특정한 시대적 성격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Lefebvre, 1968/2005). 일상은 가장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일상의 양태가 드러나는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도구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일상성은 현대와 도시라는 두 축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사고 및 행동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Park, 2012).

2. 예술에서 일상성

1) 예술에서 일상성

다다(Dada)와 레디메이드(Ready-made), 초현실주의를 통해 미술사에서 일상의 사물 자체를 작품 속에 수용한 오브제 예술이 예술 전반을 주도하였

다. 산업사회의 결과물들인 일상의 이미지가 현대 미술에서 처음으로 구체성을 띤 모티브가 되었다. 미술은 이제 재현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이며, 기성품 혹은 발견된 물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1940년대 시작된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의 추상표현주의가 과거의 재현회화와의 단절을 가져오고 과도한 추상성과 모호함이 대중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추상표현주의에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일상성을 내세워 대중 매체를 그대로 예술로 가져왔던 것은 팝아트였다. 처음에는 뒤샹(Duchamp)의 다다적 개념으로 추상표현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그 후 1960년대부터 미국의 자본주의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일상 소재들이나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주제로 대중적 이미지들을 반복적으로 전사하는 방법으로 현대적인 삶을 보여주었다. 뒤샹이 산업사회의 물건인 레디메이드를 사용하고, 팝아트가 대량생산 시대의 물건들을 작품에 차용하면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개념이 일상성이다. 그러나 뒤샹과 팝아트의 예술은 일상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가져온 일상적 오브제들이 예술의 문맥 내에서 의미 변화와 복제의 과정을 거치면서 예술화되어 일상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었다. 일상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팝아트 이후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팝아트의 명성이 저물어가던 시기인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부터 회화 및 조각에서 재현 미술로의 복귀 경향의 하이퍼 리얼리즘이 출현하게 된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 극사실 기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의 사실주의가 미술계에 등장한다. 하이퍼 리얼리즘은 보통의 사람들, 도시의 풍경과 일상의 재료 등 도시적 이미지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경향이다. 산업사회와 함께 대두된 여러 현상과 도시의 팽창으로 인한 사회문제, 상품의 물신화, 소수 집단의 불만을 시각예술 안으로 포용하는 작업이다. 표현으로서의

예술에서 사실적이고 현실에 대한 순수한 시각적 가치를 향한 재현으로서의 예술이라는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Kim, 2013). 현대 소비사회의 대량생산품들과 평범한 도시인의 일상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팝아트가 강조한 일상성과 현장성을 흡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Kim, 2006). 그러나 팝아트가 삶의 한 부분을 해석 없이 보여준 것에 비해 하이퍼 리얼리즘은 일상생활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듀안 헨슨의 작품 세계와 일상성 표현 특성
하이퍼 리얼리즘의 조각 영역에서는 듀안 헨슨이 대표적인 작가이다. 팝아트의 영향으로 인체 조각은 몸의 재현으로 회귀하고 동시대의 삶과 행동 양식을 차용하여 현실을 극히 생생하고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일상의 모습들이 세부적인 사실로 재현됨으로써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이 묘사되었다. 그의 제작 방법은 실제 모델을 통해 폴리에스터(polyester) 수지로 본을 뜨고 그 위에 폴리비닐(polyvinyl)을 입혀 인체의 형상을 만든다. 그리고 색을 칠해 피부를 표현한 후 미세한 털, 땀구멍, 주름 등의 세부 묘사가 정교하게 이루어진다. 설정한 대상에 가장 적합한 옷을 입히고 어울리는 장신구와 소지품을 배치하여 현실적인 인물로 재현한다. 실재하는 사람처럼 연출하기 위해 조각 작품을 지지하는 좌대 없이 설치하여 사실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자들은 그들이 처한 사회나 일상생활 속의 장면을 작품을 통해 타자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를 향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독창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듀안 헨슨의 작품 초기에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나 마피아의 희생자들, 사회 부랑자의 모습과 같은 주제로 현대사회의 불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의 물질적 풍요와 대중 소비사회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이나 현대 도시인의 일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인체를 형상화하여 아주 근접한 시각으로 리얼리티(reality)한 일상을 ‘미국식 생활양식’이라는 특정한 시대적 성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시도였다.

(1) 전형적인 인물 표현

듀안 헨슨은 인체를 물성화하여 현실의 일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여기서 일상 이미지란 현대인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의상과 소품을 일컫는다. 『Tourists II』는 목에 카메라를 메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화려한 색채의 옷을 입고 관광하는 살찐 중년 부부를 나타내고 있다(Figure 1). 대부분의 인체 조각을 풍만한 볼륨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의 물질문명과 소비사회의 특징인 게으름을 당시의 시대적 성격으로 나타내었다. 『Rita the Waitress』는 웨이트리스(waitress)의 유니폼에 굽 없는 편한 신발을 신고 서빙 트레이(serving tray)와 행주를 들고 앞치마에 주문서를 꽂은 채 피곤한 모습으로 있는 식당 종업원을 묘사하였다. 듀안 헨슨은 “조각의 대상들은 모습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에 대상이 속한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을 찾아낸다.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일상을 살아가는 극히 평범한 인물을 표현하였다.

(2) 일상 공간으로의 편입

『Lunch Break』는 공사 현장에서 세 명의 노동자들이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잠깐의 휴식인 듯 작업 현장에 안전 모를 쓴 채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작업대 위에 걸터앉아 있다. 나머지 인물은 평행자를 들고 작업대에 기대고 서 있다. 작업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여 작품이 실재하는 장소에 있는듯하게 연출한다(Figure 2). 『Businessman』은 흰머리에 두꺼운 안경, 볼록한 배, 사마귀 있는 얼굴, 걷어 올린 와이셔츠 소매, 약간 풀어헤친 넥타이, 구김이 생

긴 바지 등으로 전형적인 중년 비즈니스맨을 표현한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있고 재떨이와 가족사진이 놓여있다. 무언가를 찾은 듯 열린 서랍 등 사무실 공간은 책상 주인만큼의 세월이 묘사되었다. 공사 현장이나 사무실, 기차역, 카페 안 테이블과 같은 도시 공간의 일상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낮익은 시각적 현실을 다룬다. 작품을 일상의 공간으로 편입시키고 연극적 설정으로 일상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져 마치 관객이 작품 속 공간에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체험할 수 있다.

(3) 일상적 시간 표현

『Children Playing Game』은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과 강아지의 단란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어떤 퍼즐 조각이 맞는지 고민하는 아이와 그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모습이 담긴 장면을 표현하였다(Figure 3). 비록 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지만 관객으로부터 곧 퍼즐의 조각을 맞추어 아이와 그 소리에 잠을 깨는 강아지의 모습 등 다음에 일어날 장면에 대한 상상력을 유도한다. 마치 사진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속되는 일상의 시간을 표현한다.

(4) 만들어진 오브제 사용

『Supermarket Lady』는 뚱뚱한 몸의 여성이 집에서 급하게 나온 듯 머리에는 헤어롤을 말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흔히 구매하는 인스턴트식품들로 넘쳐나는 쇼핑카트를 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Figure 4). 작품 속 여성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살찐 주부를 모델로 하였다. 인물의 시대를 배경으로 당시



Figure 1. Tourists II.
From Duane Hanson.
(n.d.a).
<http://www.saatchigallery.com>



Figure 2. Lunch Break.
From Lockhart.
(2003).
<http://www.thebroad.org>



Figure 3. Children Playing Game.
From Bunyan, (2011).
<http://www.artblart.com>



Figure 4. Supermarket Lady.
From "Supermarket lady".
(n.d.).
<http://www.site-hda.pages.perso-orange.fr>

의 생활 영역에 속하는 헤어롤이나 담배,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들을 직접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느낌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3. 패션에서 일상성

다다와 초현실주의의 오브제 예술의 영향으로 패션의 영역에도 다양한 일상의 이미지들이 시도되었다. 초현실주의 디자이너로 평가되는 엘사 스키피아렐리(Elsa Schiaparelli)는 1935년 코펜하겐(Copenhagen)의 어부들이 착용하는 신문지로 만든 모자에서 영감을 받아 신문(newspaper clipping)이 인쇄된 의상을 발표하였다. 하루가 지나면 버려지는 신문은 일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티브로 1983년 모스키노 꾸뛰르(Moschino Couture)와 2000년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에서 차용되었다. 그리고 2018 S/S에서 발렌시아가(Balenciaga)와 헬무트 랭(Helmut Lang)에 의해 다시 재해석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eges)와 파코라반(Paco Rabanne)에 의해 이제까지 의상에서 사용되지 않던 비닐, 플라스틱 셀로판, 알루미늄, 금속과 같은 대량생산 시대의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재료들이 의복에 시도되었다. 패션에 일상의 재료나 물질들로 더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며 대중에게 새로운 경험과 충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일상이 전면에 나왔다고보다는 팝아트의 영향으로 일상 사물에 대한 재해석으로서의 오브제가 패션에 도입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일상이 패션에서 소재나 주제가 된 것은 2013년부터이다.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누리 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두되면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옷이 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 질 샌더(Jil Sander)는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봉투를(Figure 5), 샤넬(Chanel)은 종이 쇼핑백의 형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방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모스키노(Moschino)는 세탁소 일회용 비닐 커버로 케이프 드레스(cape dress)를 제작하였고(Figure 6)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이케아(Ikea) 쇼핑백을 사실적인 형태로 재현하였다(Figure 7). 셀린(Celine)은 비닐 백을 출시하고 슈프림(Supreme)은 아무 의미 없는 벽돌(Figure 8)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는 흔하게 쓰고 버리는 일상의 물건들이 본래의 형태와 기능 그대로 재현되어 일상 이미지가 패션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2014 F/W 샤넬 컬렉션은 슈퍼마켓을 콘셉트로 일상 자체가 주제가 되었다. 슈퍼마켓과 같은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편안하고 평범한 샤넬을 선보이며 일상생활을 하이패션에 적용한 사례이다(Blanks, 2014). 이와 같이 매우 사적인 일상의 영역들, 즉 사물이나 장소, 친구나 가족 등 우리 주변의 '흔한 것'들이 컬렉션의 주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14년부터 평범하고 단순함을 추구



Figure 5. Vasari Bag.
From FALL 2012
Menswear
Jil Sander. (n.d.).
<http://www.vogue.com>



Figure 6. Dry Cleaning
Cape Dress.
From FALL 2017
READY-TO-WEAR
Moschino. (n.d.).
<http://www.vogue.com>



Figure 7. Carry Bag.
From Hong. (2017).
<http://www.vogue.com>



Figure 8. Brick.
From Kim. (2017).
<http://www.news.khan.co.kr>

하는 norms코어(Normcore) 트렌드(Im, 2014)는 일상복이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norms코어보다 더 극단적인 개념의 트렌드로 유행에 무지한 비주류 집단의 의복 특징을 재현한 너드(nerd) 패션(Park, 2016)은 그동안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패션에 반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norms코어나 너드 패션과 같은 트렌드는 세련되고 심플한 1990년대의 미니멀리즘이나 유행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안티(anti) 패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일상의 이미지가 패션에 반영된 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상의 이미지가 패션에 주체가 되는 흐름 속에서 베트멍을 선두로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 키코 코스타디노브(Kiko Kostadinov)와 같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상의 개념이 패션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베트멍의 디자이너이자 발렌시아가의 아트 디렉터인 템나 바잘리아는 앤트워프(Antwerp) 5인방 시대를 거쳐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존 갈리아노의 화려한 시대가 저문 후 상업주의에 빠진 세계 패션계에 규칙을 깨는 미학으로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베트멍은 2014 F/W 컬렉션에서 첫 작품을 선보이고 2015 S/S 컬렉션부터 파리 패션 컬렉션에 참가하기 시작한 프랑스 브랜드이다. 그리고 2018년 패션계의 관료주

의에 싫증을 느끼고 파리 컬렉션 참가 중단을 선언하였다. 본사를 스위스 취리히(Zurich)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패션 규칙을 깨는 행보를 통해 하이패션을 일상 속으로 이끌고 있다. 베트멍은 템나 바잘리아를 중심으로 7명으로 구성된 공동체 브랜드이다. 기존 패션 시스템과는 다른 작업 방식으로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Andy Warhol)의 팩토리(The factory)와 흡사하다. “그것은 단지 옷이다”라는 철학으로 패션을 통해 추구하는 이상화된 환상을 배제하고 실제 일상의 옷 그 자체를 추구한다.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재창조함으로써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III. 베트멍 작품의 일상성 표현 특성

1. 일상적 인물

듀안 헨슨은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여자 청소부(Figure 9), 은퇴한 노인(Figure 10), 쇼핑하는 여성(Figure 11), 여행하는 청년(Figure 12)과 같이 눈에 띄지 않지만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대중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한다. 대상이 속한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고정적 관념들을 찾아내서 실제 상황



Figure 9. Queenie II.
From Duane Hanson, (n.d.b).
<http://www.saatchigallery.com>



Figure 10. Man on a Bench.
From Duane Hanson, (n.d.c).
<http://www.saatchigallery.com>



Figure 11. Young Shopper.
From Duane Hanson, (n.d.d).
<http://www.saatchigalle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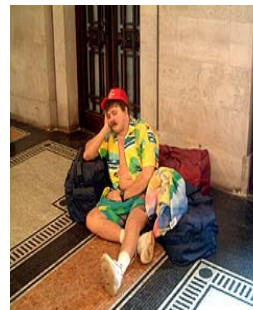


Figure 12. Traveller.
From Duane Hanson, (n.d.e).
<http://www.saatchigallery.com>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을 제작한다. 실재보다 더 실제같이 재현된 인물을 볼 때 거대한 도시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과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허무감이 가시화되어 나타나면서 관람자는 큰 충격을 받는다.

베트멍은 『보그(Vogue)』에 “어떤 디자이너들은 여행에서 영감을 얻지만 우리는 파리의 지하철을 타고 벨빌(Belleville)과 바베(Barbès) 사이를 오간다”라고 인터뷰하였다. 지하철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이 컬렉션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2017 F/W 컬렉션에서는 상류 계층, 평범한 직장인, 사회 부적응자, 패셔너블하지 못한 캐릭터 등 각양각색의 고정된 이미지를 표현한 인물들이 등장하였다. <Figure 13>과

<Figure 15>는 네덜란드 사진작가 아리 버스루이스(Ari Versluis)와 엘리 유티텐브록(Elle Uyttenbroek)이 1994년부터 전 세계를 돌며 개인주의와 집단성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만든 『Exactitudes』 시리즈로 그 집단의 고정된 특징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베트멍은 이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을 규정하는 특징을 찾아내 그대로 재현하였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 집에 틀어박혀 TV만 보는 사람, 비서(Figure 14), EMO(Figure 16), 펑크, 사회복지사, 마약 중독자, 자원봉사자, 연금 수령자, 할머니, 트레킹하는 남자 등이 포함된다.

스테레오타입(stereotypes)이라는 주제로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Figure 13. City Girls.
From Exactitudes, (n.d.a).
<http://www.exactitudes.com>



Figure 14. Secretary.
From FALL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a).
<http://www.vogue.com>



Figure 15. Mohawks.
From Exactitudes (n.d.b)
<http://www.exactitudes.com>



Figure 16. EMO.
From FALL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b).
<http://www.vogue.com>

캐릭터를 런웨이에 구현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에 파편화된 집단을 관념이 아닌 스타일이라는 직관적인 요소로 나열하여 관람자들로부터 도시라는 일상의 공간에 그들과 공존함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적인 인물 표현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집한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일반인에게 각 집단의 정형화된 특성이 반영된 의상을 착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관람자는 마치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행인들을 보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직면하는 평범한 현실에 일탈감과 충격을 받는 것이다(Figure 17-20).

베트멍의 의상은 일상의 인물 표현을 통해 익숙하지만 낯선 신선함을 창조한다. “패션이 예술이 되는 순간은 옷을 입고 싶지 않고 그저 보고만

있고 싶을 때이다”라는 베트멍은 배송업체 DHL의 로고가 있는 실제 작업복(Figure 21)과 소방관과 안전 구조원의 유니폼을 재작업한 의상들을 디자인한다. 이는 패션을 통해 기대하게 되는 환상이 완전히 배제된 일상을 디자인한 것이다. 베트멍의 컬렉션에 특히 많이 표현되는 인물은 보안요원(Figure 22), 경비원, 경찰과 군인이다. 군인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는 강인함이지만 베트멍은 다소 왜소한 체격의 모델로 그들을 현실적으로 표현하였다(Figure 23). 21세기에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환기시키고 구멍 난 제복과 모델의 왜소함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참전 군인의 불안감을 현대의 시대적 성격으로 나타내었다.



Figure 17. Working Clothes.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êtements. (n.d.a).
<http://www.vogue.com>



Figure 18. Senior Citizens.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a).
<http://www.vogue.com>



Figure 19. Milanese.
From FALL 2017
READY-TO-WEAR Vêtements.
(n.d.c).
<http://www.vogue.com>



Figure 20. Traveller.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b).
<http://www.vogue.com>



Figure 21. DHL.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êtements. (n.d.b).
<http://www.vogue.it>



Figure 22. Security Officer.
From FALL 2015
READY-TO-WEAR Vêtements.
(n.d.).
<http://www.vogue.com>



Figure 23. Soldier.
From FALL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
<http://www.vogue.com>



Figure 24. Steve Jobs Style.
From FALL 2019
READY-TO-WEAR Vêtements.
(n.d.).
<http://www.vogue.com>

2019 S/S 컬렉션은 소비에트(Soviet) 연방의 조지아(Georgia) 내전을 그대로 재현하였다. 조깅 바지를 입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과 군대 위장복을 입은 테러리스트 등 대조적인 인물들을 표현하였다. 2019 F/W 컬렉션에서는 ‘안티-소셜(anti-social)’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검은색 티셔츠에 물 빠진 청바지, 운동화로 대표되는 애플(Apple)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소셜 미디어 사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재현하였다(Figure 24). 인터넷과 핸드폰, 소셜 미디어로 인해 야기되는 반사회적 집단 구성원들의 특징을 재현한 의상들을 다루면서 현대사회 이면에 흩어져있는 진짜의 삶들을 표현하였다. 듀안 헨슨과 베트멍은 전문 모델이 아닌 다양한 신체 비율을 가진 일반인을 모델로 하여 현실성과 일상성을 높여주고 있다. 일상적 사물과 역명의 인체는 평범한 삶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기호이다. 등이 굽고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 인체의 표현은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의 고달픔을 나타낸다(Figure 25). 베트멍의 인체 비율보다 긴 소매 또는 좁은 어깨나 넓은 어깨의 의상은 아름다운 신체 이미지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을 깨뜨리고 우상 파괴(iconoclastic)를 통해 평범함을 강조한다(Figure 26-28).

일상으로부터의 이미지차용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소재로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베트멍의 디자인이 과격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무심하게 지나쳤던 평범한 일상을 타자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직면하면서 오는 과격이고 충격인 것이다.

2. 일상적 공간

일상은 현재를 현대적인 시·공간의 현실로 파악할 수 있다. Lefebvre(1968/2005)는 도시를 다양한 개인, 집단, 계급들, 그리고 상이한 생활양식들을 한 데 결합시키는 시간과 장소로 정의한다. 듀안 헨슨은 도시적 특성과 서사적이고 연극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인의 사회적 기능을 서술함으로써 관람자의 감정이입을 매개시켰다. 작품이 전시되는 무대를 실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 공간으로 편입시키고 연극적 요소의 연출로 인물과의 인과성과 조화성을 높인다(Figure 29, 30). 현실감(reality)을 느끼기 위해서 작가와 관객이 공유할 수 있는 시공간의 동시성이 기본 조건(Kim, 2009)으로 관객들을 실재하는 그들의 상황에 직접적 경험을 통해 인식시키기 위한 시도이다. 베트멍은 전통적인 형태의 런웨이 쇼 중단을 선언한 2018 S/S 컬렉션을 스위스 취리히의 거리에서 진행하였다. 실제 거주민들이 포즈를 취하고 디자이너가 직접 찍은 스트리트 사진 시리즈로 런웨이



Figure 25. Janitor.
From Milwaukee Art Museum.
(n.d.).
<http://www.mam.org>



Figure 26. Sleeves.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c).
<http://www.vogue.com>



Figure 27. Shoulder.
From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a).
<http://www.vogue.com>



Figure 28. Shoulder.
From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b).
<http://www.vogue.com>



Figure 29. Flea Market Lady.
From Duane Hanson.
(n.d.f).
<http://www.saatchigallery.com>



Figure 30. Man on Bench.
From Art Factory
(n.d.).
<http://www.artfactory.com>



Figure 31. Zürich Street.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d).
<http://www.vogue.com>



Figure 32. Cathedra.
From FALL 2016
Vêtements. (n.d.).
<http://www.demnagvasalia.com>

쇼를 대체하였다. 이 사진들을 모아 파리 기차역 근처 주차장에서 새 시즌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도시 거주민들에게 패션모델들이 하는 다소 과장된 몸짓을 요구해서 찍은 사진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개인의 일상 사진처럼 연출되었다(Figure 31). 이는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해 ‘옷이란 실제로 그들이 입는 것이다’라는 옷에 대한 본질을 표현한 것이다. 2016 F/W 컬렉션은 파리 조르주 5번가(Avenue Georges V)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성당에서(Figure 32), 그리고 2018 F/W의 컬렉션은 파리의 베흐시장 복도에서 패션쇼가 개최되었다. 도시 전체가 패션쇼의 무대가 되거나 레스토랑, 교회, 쇼핑몰, 박물관, 도시 외곽 순환도로 아래와 같이 매일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 즉 우리 눈앞에 항상 존재하는 일상의 공간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 도시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공간을 런웨이로 편입하여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려 관객이 그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한다.

3. 일상적 시간

시간은 공간과 함께 인간 경험을 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Lefebvre(1968/2005)는 비교적

시간성으로 일상성을 정의한다. “일상이란 보잘 것 없으면서도 견고한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부분과 단편들이 하나의 일과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있는 어떤 것이다”(p. 79). 그러므로 일상은 인간 삶의 가치를 연속시키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듀안 헨슨의 작품 속 모든 대상은 이미 존재하거나 경험된 것들이고 경험은 기억으로 남는다. 사물들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어 졌고 도시의 풍경과 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대다수 현대인이 거주하는 도시 공간에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것을 배격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아이가 유모차에서 잠든 순간(Figure 37), 벽에 기대어 잠시 쉬는 순간(Figure 38) 혹은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춘 순간(Figure 39), 사진을 찍기 전 촬영의 구도를 잠시 생각하는 순간(Figure 40) 등 평범한 일상의 포착된 순간을 통해 관객들은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 매일의 연속 중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장면은 정지된 화면으로 연출된 네러티브(narrative)가 있는 것이다. 베트명은 “드레스가 하늘거리고 여성스러우면서도 그것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처럼 새 옷을 착용의 흔적이나 사용감 있게 만든다. 또는 “이미 존재하는 옷, 우리가 사랑하는 옷으로 작업하고 싶다”와 같이 중고 시장에

서 구매한 재활용 옷을 해체한 후 재구성해서 작업한다. 이는 경험되어진 것들에 대한 기억의 단편들이 서로 연결되어 연속되는 일상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Figure 33-36>과 같이 2017 S/S 컬렉션에서 리바이스(Levi's)를 리워크(rework)한 청재킷과 청바지, 1990년대에 유행했었던 리복(Reebok), 이스트팩(Eastpak), 챔피온(Champion)과 같은 브랜드의 로고나 스타일을 재사용하였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소유했었던 것에 대한 “흔적을 보존하면서 과거 또는 그 빈티지 의복의 소유자에 대한 회상의 의미를 갖는데 시간의 흔적과 그 자체의 미학”(Yim, 2013, p. 14)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일상은 부분과 단편들이 서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연속시키려는 속성을 가

지고 있다. 일시적인 장면들은 사진첩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생애사적 기록을 보여준다(Figure 37-40). 인스타그램(Instagram)이나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소셜 미디어에서 일상의 특정 순간을 공유하는 사진을 보듯 결혼과 임신을 통해 한 가정을 꾸려가는 일련의 삶의 과정을 보여준다(Figure 41-44). 일상은 한 순간, 포착된 찰나의 순간으로 경험되어 기억으로 남고 이러한 순간들은 매일의 일상적 반복을 통해 삶이 지속하고 있다는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일상적 오브제

1917년 뒤샹이 친구들과 함께 창간한 잡지



Figure 33. LEVI'S.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a).
<http://www.vogue.com>



Figure 34. Reebok.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b).
<http://www.vogue.com>



Figure 35. Eastpak.
From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c).
<http://www.vogue.com>



Figure 36. Champion.
From SPRING 2017
Vetements. (n.d.).
<http://www.demnagvasalia.com>



Figure 37.
Baby in Stroller.
From Dutch Girl in London. (2015).
<http://www.dutchgirlinlondon.com>



Figure 38.
High School Student.
From Atnip. (2017).
<http://www.curiator.com>



Figure 39.
Saleman.
From Kemp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n.d.).
<http://www.kemperart.org>



Figure 40.
Man with Camera.
From Van de Weghe Fine Art. (n.d.).
<http://www.artnet.com>



Figure 41. Propose.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e).
<http://www.vogue.com>



Figure 42. Marriage.
From FALL 2017
READY-TO-WEAR Vêtements.
(n.d.d).
<http://www.vogue.com>



Figure 43. Pregnant.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f).
<http://www.vogue.com>



Figure 44. Family.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g).
<http://www.vogue.com>

『The Blind Man』에서 번기에 서명한 그의 작품 『샘(Fountain)』에 대해 정의하였다. 번기라는 일상의 사물이 선택되어 실용적인 특성을 버리고 본래의 목적과 다른 시각의 샘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창조된 것이다. 이로써 일상의 오브제는 예술이 되었다(Figure 45). 현대미술에 지대한 역할을 한 뒤상의 오브제는 하이퍼 리얼리즘에 와서는 그 역할을 달리하게 된다. 특히 듀안 헨슨의 작품에서 일상의 오브제는 중요한 필수요소가 되었다. 선택에 의한 새로운 발견으로서의 ‘발견된 오브제’도 아니고 초현실적 의미로 ‘전치 가능한 오브제’(Kim, 2012)도 아니다. 그의 작품 안에서의 오브제는 본래 용도가 변하지 않고 작품의 실제성과 현장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 대상에 입

혀지는 옷이나 착용하는 소도구, 가방 등의 액세서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지위와 나이, 상황을 더욱 사실감 있게 표현해준다. 또한, 언급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 주변의 오브제들을 사용해 일상의 현실감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듀안 헨슨의 작품 속의 오브제는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만들어진 오브제(Lee, 2009)’의 형식을 갖는다. <Figure 46>에서 보듯이 편한 일상복을 입은 주부의 형상에 옷이 담긴 빨래 바구니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세탁용 세제를 그대로 재현하여 배치함으로써 더욱 사실적이고 일상적인 인물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일상의 오브제는 작품 안에서 사물 그대로의 형태로 예술과 현실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패션 영역에서는 <Figure



Figure 45. Fountain.
From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n.d.).
<http://www.sfmoma.org>



Figure 46. Woman
with a Laundry Basket.
From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n.d.).
<http://www.nga.gov.au>



Figure 47.
Porcelain Gilet.
From Garrigues. (2018).
<http://www.vogue.fr>



Figure 48. Clear Vinyl
Plastic Bag.
From SPRING 2018
READY-TO-WEAR
Vêtements. (n.d.h).
<http://www.vogue.com>



Figure 49. Socks Shoes.
From SPRING 2016
READY-TO-WEAR
Vêtements. (n.d.c).
<http://www.vogue.com>

<Table 1> 패션에 나타나는 일상성 표현 특성.

표현 방법	의미	표현 특성
일상적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모방을 통한 재현 기법 - 특정 시대의 다양한 계층의 삶과 전형적인 양식차용 - 신체 비율이 파괴된 디자인 - 일반인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의 전형화 - 다양한 인간상 표현 - 이상적인 신체 비율 파괴로 평범함 강조 	현실성
일상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패션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상황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현장감 극대화 - 옷이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입는 것이라는 옷에 대한 본질 표현 	실재성
일상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티지 소재나 의복 재사용 - 해체 후 재구성 - 레트로 디자인 - 일상의 단편적인 장면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일의 일시적 장면들의 반복을 통해 일상의 지속성 표현 - 정지된 화면으로 연출된 네러티브 	일시성
일상적 오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의 물건들을 그 본래의 기능과 형태를 그대로 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일상성을 상징화 	보편성

47>에서 보듯이 1989년에 마틴 마르지엘라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깨진 접시 조각을 이용하여 조끼를 제작하였다. 이는 식탁에서 사용하는 접시 본래의 용도는 사라지고 ‘입는다’라는 새로운 기능의 옷을 의미하는 ‘발견된 오브제’의 형식이다. 이와 비교하여 베트멍의 일상 이미지를 차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백(plastic vinyl bag) (Figure 48)과 같은 패션 오브제를 보면 주변의 흔한 물건들을 형태 그대로 의미 전복 없이 재현한 ‘만들어진 오브제’의 형식을 사용하였다. “우리는 패션 드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를 팔아야 한다”라는 그의 철학처럼 시대를 상징하는 우리 주변의 흔한 물건에서 영감을 얻어 대중들이 가지고 싶은 아이템으로 변신시킨다. 이것은 하이패션의 난해하고 관념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패션의 일상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현대의 일상 이미지는 사물을 소비하는 일상이다(Baudrillard, 1970/1999). 베트멍은 네트 백, 침낭(sleeping bag), 축구 서포터즈 스카프, VHS 테이프, 양말 같은 신발(Figure 49)처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일상의 물건들을 그 본래의 용도와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여 상품으로 출시함으로써 일상을 환기한다.

이상과 같이, 전형적인 인물 표현, 일상 공간으로

의 편입, 일상적 시간 표현, 만들어진 오브제 사용의 방법으로 인체에 일상성을 반영한 듀안 헨슨의 작품 특성을 바탕으로 베트멍 패션에 나타난 일상성 표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IV. 결 론

이 연구는 미술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상이 구체성을 가지고 주제가 된 하이퍼 리얼리즘 조각가 듀안 헨슨의 작품에 나타난 일상성 표현 양상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베트멍의 패션에 나타나는 일상성 표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 특징으로 첫째는 현실성을 표현한 것이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직장인, 펑크족, 군인, 마약 중독자, 등산하는 아저씨, 연금 수령자, 할머니, 학생 등 다양한 사회적 삶의 고정적 관념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반영하여 현실 속 실제 하는 인물처럼 재현하여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인간상을 표현하였다. 사실적 표현을 위해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을 모델로 기용하여 이상적인 신체 비율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평범함과 일상성을

강조하였다. 군인 유니폼, 핑크족을 대표하는 의상, 직장인을 위한 포멀(formal)한 슈트, 등산복 등 일상에서 익숙한 의상들이 뒤섞여 런웨이에 등장하면 관객은 흔히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는 듯한 익숙한 현실감에서 오히려 파격과 신선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단순히 스트리트 패션이 하이 패션으로 진입하였다는 측면으로만 베트밍의 스타일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는 실재성을 표현하였다. 레스토랑, 교회, 소품물, 박물관, 도시의 거리 등 현대 도시인들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공간을 런웨이를 편집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려 관객이 그 공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한다. 일상적인 상황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해 ‘옷이란 실재적으로 그들이 입는 것이다’라는 옷에 대한 본질을 표현하였다. 세 번째는 일시성의 표현이다. 빈티지 소재나 의복을 재사용하거나 해체한 후 재구성한다. 그리고 지난 시대에 유행했었던 로고나 패션 스타일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경험되어진 것들에 대한 기억의 순간을 반복한다. 연속되는 일상에서 사진을 찍듯 일시적인 장면을 포착하고 그 일시적 장면들의 반복을 통해 일상의 지속성을 표현하였다. 넷째, 보편성의 표현이다. 매일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주변의 흔한 일상용품을 있는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하이패션의 난해함이나 관념성을 제거하고 보편적 일상성을 상징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베트밍은 인물의 전형화를 통한 현실성, 일상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 실재성과 일시성을 표현하고 일상의 오브제 사용으로 보편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 도시의 일상 이미지를 패션에 반영하여 일상성을 표현하였다.

변화하는 시대의 양태에 따라 일상도 변모한다. 듀안 헨슨은 물질적 풍요와 대중 소비사회의 미국 중하층의 일상을 재현하였고 베트밍은 현대사회에 파편화된 집단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

다. “베트밍은 길거리에 관한 것이고 거리에서는 우아함이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것처럼 베트밍이 인식하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생활양식으로 재현하였다. 오랫동안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추상화된 하이패션에 맞서 베트밍은 가장 평범한 일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리얼리티에 기반한 패션 디자인적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일상 이미지의 차용으로 예술이 대중적 미학으로의 전환을 이루었듯이 패션에서도 일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하는 새로운 미학적 관점의 디자인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패션의 일상성 연구는 현대패션 트렌드의 새로운 변화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Art Factory. (n.d.). *Art Facto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www.artfactory.com/art_appreciation/visual-elements/texture.html
- Atnip, L. (2017, July 24). *Curator*.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curator.com/art/duane-hanson/high-school-student>
- Baudrillard, J. (1999).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Lee, S. L., Trans). Seoul: Munye. (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Blanks, T. (2014, March 4). *Vogue*. Retrieved May 10,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chanel>
- Bunyan, M. (2011, March 03). *Artblart*.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artblart.com/tag/duane-hanson-children-playing-game/>
- Choi, J. E. (2013). *A study on the image of postmodernism manifested in fashion mod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University, Seoul.
- Duane Hanson. (n.d.a). *Saatchi galle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saatchigallery.com/artists/artpages/duane_hanson_tourists_2.htm
- Duane Hanson. (n.d.b). *Saatchi galle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saatchigallery.com/artists/artpages/duane_hanson_queenie_2.htm
- Duane Hanson. (n.d.c). *Saatchi galle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saatchigallery.com/artists/artpages/duane_hanson_man_bench.htm

- Duane Hanson. (n.d.d). *Saatchi galle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saatchigallery.com/artists/artpages/duane_hanson_young_shopper.htm
- Duane Hanson. (n.d.e). *Saatchi galle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saatchigallery.com/artists/artpages/duane_hanson_sunbather_traveller.htm
- Duane Hanson. (n.d.f). *Saatchi gallery*.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saatchigallery.com/artists/artpages/duane_hanson_fleamarket.htm
- Dutch Girl in London. (2015, September 1). *Dutch Girl in London*.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dutchgirlinlondon.com/2015/09/01/exhibition-sculptor-duane-hanson-at-the-serpentine-gallery-london/>
- Exactitudes. (n.d.a). *Exactitudes*. Retrieved April 15, 2019, from <https://exactitudes.com/collectie/>
- Exactitudes. (n.d.b). *Exactitudes*. Retrieved April 15, 2019, from <https://exactitudes.com/collectie/>
- FALL 2012 Menswear Jil-Sander. (n.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2-menswear/jil-sander/slideshow/details#47>
- FALL 2015 READY-TO-WEAR Vetements. (n.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5-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
- FALL 2016 Vetements. (n.d.). *Vetementswebsit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demnagvasalia.com/fashion-show/fall-2016/#lookbook>
-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a).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0>
- FALL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b).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8>
- FALL 2017 READY-TO-WEAR Moschino. (n.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moschino/slideshow/collection#45>
- FALL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a).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7>
- FALL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b). *Vogue*. Retrieved May 14, 2019,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8>
- FALL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c).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
- FALL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6>
- FALL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3>
- FALL 2019 READY-TO-WEAR Vetements. (n.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
- Garrigues, M. (2018, January 28). *Vogue*. Retrieved April 15, 2019, from <https://www.vogue.fr/fashion-culture/fashion-exhibitions/diaporama/everything-to-know-about-the-margiela-galliera-exhibition-1989-2009/48122>
- Hong, K. H. (2017, May 17). 이케아(IKEA) 패러디의 끝은 어디까지? [Is there any limitation of IKEA's parody?]. *Vogue*. Retrieved April 10, 2019, from <http://www.vogue.co.kr/2017/05/17/%EC%9D%B4%EC%BC%80%EC%95%84ikea-%ED%8C%A8%EB%9F%AC%EB%94%94%EC%9D%98-%EB%81%9D%EC%9D%80-%EC%96%B4%EB%94%94%EA%B9%8C%EC%A7%80/>
- Im, S. E. (2014, April 28). 평범함을 추구하는 ‘놈코어’ 스타일 [‘Nomcore’ style pursues mediocrity]. *Vogue*.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www.vogue.co.kr/2014/04/28/%ed%8f%89%eb%b2%94%ed%95%a8%ec%9d%84-%ec%b6%94%ea%b5%ac%ed%95%98%eb%8a%94-%eb%86%88%ec%bd%94%ec%96%b4-%ec%8a%a4%ed%83%80%ec%9d%bc/>
- Jo, E. A. & Park, J. H. (2017) Influences of *Post-Soviet* in fashion designer Demna Gvasalia's works. *Journal of Fashion Design*, 17(1), 137-153. doi:10.18652/2017.17.1.9
- Kemp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n.d.). *Kemper Museum of Contemporary Art*.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kemperart.org/collection/salesman>
- Kim, B. M. (2017, June 27). [월드 in 컬처]프라다 클립, 슈프림 벽돌도 패션? [[World in Culture] Are Prada clip and Supreme brick fashion?].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April 10, 2019,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6271155001
- Kim, H. G. (2009). *A study on the reality of time and space in new media 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J. W. (2013).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visual symbolism of hyper realism arts. *Journal of Design Culture*, 19(3), 95-108.
- Kim, S. (2006). *A study on daily life's image of human body in Contemporary 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Kim, S. E. & Ha, J. S. (2016). A study on aesthetic values of neo deconstructive fashion: focused on Vetments. Marques' Almeida, Jacquemus, *Journal of Fashion Design*, 16(4), 129-150. doi:10.18652/2016.16.4.8
- Kim, S. H. & Kim, Y. (2017).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positive deconstruction fashion: focused on

- the collections since the 2014. *Journal of Fashion Design*, 17(4), 67-85. doi:10.18652/2017.17.4.5
- Kim, Y. K. (2012). A study of aspects of object trouve's expression appeared in fashion design.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3(2), 125-135.
- Lee, S. Y. (2009). *A study on hyper realistic sculpture: focusing on Duane Han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febvre, H. (2005).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Park, J. J., Trans). Seoul: Kipar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Lockhart, S. (2003, May 5). Lunch Break Installation, "Duane Hanson: Sculptures of Life". *The Board*.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www.theboard.org/art/sharon-lockhart/lunch-break-installation-duane-hanson-sculptures-life-14-december-2002-23>
- Milwaukee Art Museum Collection. (n.d.). *Milwaukee Art Museum*.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collection.mam.org/details.php?id=6973>
-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n.d.). *NGA*.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nga.gov.au/hyperreal/artists-edu-resource.cfm?artistim=48374>
- Park, S. Y. (2012). A study on the aspects of ordinariness discourse in Saseolsijo and its modernity. *The Korean Essays On Sijo Literary Science*, 37(-), 125-158.
- Park, S. Y. (2016, March 16). 패션의 완성은 성공?...실리콘밸리 천재는 'IT시크'를 입는다 [Successful completion of fashion? Silicon Valley genius wears 'IT chic']. *Han kook-Ilbo*. Retrieved May 2, 2019, from <https://www.han kookilbo.com/News/Read/201603160486771116>
- San Francisco Museum of Modern Art. (n.d.). *SFMOMA*. Retrieved April 15, 2019, from <https://www.sfmoma.org/read/discussion-questions-marcel-duchamp-fountain/>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a).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5>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b).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
- SPRING 2016 READY-TO-WEAR Vetements. (n.d.c).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0>
- SPRING 2017 Vetements. (n.d.). *Vetementswebsit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demnagvasalia.com/fashion-show/spring-2017/#details>
-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a).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4>
-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b).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0>
- SPRING 2017 READY-TO-WEAR Vetements. (n.d.c).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ready-to-wear/vetements/slideshow/details#24>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a).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5>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b).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29>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c).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8>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d).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6>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e).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43>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f).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51>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g).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30>
- SPRING 2018 READY-TO-WEAR Vetements. (n.d.h). *Vogue*. Retrieved May 14, 2019,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menswear/vetements/slideshow/collection#13>
- "Supermarket lady" 1970 Duane Hanson. (n.d.). *Histoire des arts*.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s://site-hda.pagesperso-orange.fr/topic1/page2.html>
- Van de Weghe Fine Art. (n.d.). *Artnet*. Retrieved April 8, 2019, from <http://www.artnet.com/artists/duane-hanson/man-with-camera-a-m30XHIe5KmT5OHd4D-9VUw2>
- Yim, E. H. (2013). Influence of anti-form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signs of tim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4), 1-16. doi:10.7233/jksc.2013.63.3.078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Hyperrealism Art and Fashion

- Focused on Duane Hanson and Vetements -

Cho, Han A • Kim, Young In⁺

Doctoral cours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works of Duane Hanson who is a representative sculptor of hyper realism an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works of Vetement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from Duane Hanson's works.

The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is study is opposed to expression that existing fashion design pursues and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new changes of trends appearing from modern fashion.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work of Duane Hanson by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that were limited to his works after the 1970s because he began to express a common everyday life as a theme of his works in earnest since the 1970s. After analyzing expression of everydayness in Duane Hanson's sculpture works, characteristics from the analysis were everyday character representation, everyday space production, everyday time representation and the use of everyday objects. Second, objects of the collection analysis were limited to the collections from the 2015 S/S season to the 2019 F/W season when Vetements began participating in the Paris Fashion Collection and a total of 463 pieces of collection photo image were selected and analyzed.

Characteristics of everydayness in modern fashion derived from the study are reality, actuality, temporality and universality.

Key words : everydayness, hyperrealism, Duane Hanson, fashion, Vetements